

長興 梧川精舍의 集書考

A Study on the collected process of *Ochonjongsa's* old books

盧基春(Ki-Chun Roh)*

< 목 차 >

- | | |
|-----------------------|-----------------|
| I. 緒言 | 1. 白文昌의 集서 |
| II. 長興 白達淳 가옥의 沿革 | 2. 白鎭恒의 集서 |
| 1. 연계세거 과정 | IV. 現存 藏書의 集서분석 |
| 2. 가옥의 건물 구성 | 1. 傳存有無 분석 |
| III. 『溪西遺稿』에 수록된 集서경위 | 2. 藏書印 분석 |
| | V. 結言 |

초 록

본 연구는 全羅南道 長興郡 龍山面 上金里(金谷)에 위치한 白達淳 가옥의 연계세거 과정과 본가에 전존되고 있는 전적의 集서과정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金谷은 혼인관계로 인하여 廣州 李氏 → 靈光 金氏 → 水原 白氏로 연계세거 되었으며, 본가에 전존되고 있는 전적의 集서과정은 대부분 白鎭恒(1760-1818)이 集서한 전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이 밝혀졌다.

주제어 : 白鎭恒, 白達淳, 梧川精舍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wo kinds. First, explain the connection residing process of the Baik Dal-Soon(白達淳)'s house which is located at the Kungok of Yongsanmyon Sanggumri, Jhanghung County, Chonnam Province in Korea. Second, analyse the collected process of old books which have been transmitted to a he's family.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Kungok has been connection resided Kawngju Lee family(廣州 李氏), Yongkwang Kim family(靈光 金氏), Suwon Baik family(水原 白氏) order by marriage connection. Second, the most of old books transmitted to a he's family have been collected by Baik Jin-Hang (白鎭恒, 1760~1818).

Key Word : Baik Jin-Hang(白鎭恒), Baik Dal-Soon(白達淳). Ochonjongsa-house(梧川精舍)

*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專任研究員(kchliboh@chollian.net)

· 접수일 : 2001. 8. 14 · 최초심사일 : 2001. 9. 3 · 최종심사일 : 2001. 9. 18

I. 緒 言

문헌기록은 학술연구의 기본적인 자료임은 재론을 요치 않는다. 그리하여 문헌자료의 확보와 이용이 1차적으로 필요함은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관련 연구자들에게 가장 큰 애로점은 이 문헌자료의 접근이 용이치 않는 데 있다. 이것은 현재 남아있는 순수한 고문헌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들 자료의 대부분이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그 소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고문헌자료가 煙滅되기 전에 이를 수집 보존하고, 보다 체계적인 정리와 아울러 학술적 평가 작업이 병행되어 즉시에 다른 세부과제 연구자에 제공되어 유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年次的으로 전남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고문헌을 발굴·조사하고, 이와 동시에 발굴된 고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련 연구자나 일반인에게 문헌자료의 소재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일차적으로 朝鮮 宣祖 代부터 廣州 李氏, 靈光 金氏, 그리고 현재 水原 白氏 등이 연계세거하고 있는 全羅南道 長興郡 荇山面 上金里에 위치한 白達淳 가옥을 선정하여 본가에 대대로 전존되고 있는 고문헌을 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약 5차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하여 발굴, 조사된 고문헌의 종수를 살펴보면, 목판본 67종, 활자본 41종(금속활자본 6종, 목활자본 11종, 연활자본 24종), 석인본 17종, 필사본 85종 등 총 210종 429책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廣州 李氏가 거주한 상금리를 靈光 金氏 그리고 水原 白氏 등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연계세거하였으며, 水原 白氏가 언제 상금리에 처음으로 입거하였는가, 그리고 水原 白氏가 현 가터(家垵)에 언제, 누가 입주하였는가, 본가에 소장하고 있는 문헌은 어느 先代에 어떤 방법을 통해 집서하였는가는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廣州 李氏 → 靈光 金氏 → 水原 白氏가 연이어 세거하고 있는 家垵의 연계세거 과정과 본가에 세워진 건물의 건축시기 및 특징을 살펴보고, 둘째, 현재 이곳에 대대로 전존되고 있는 전적의 집서과정에 대해서 관련 문헌과 함께 장서인 또는 장서기를 분석하여 이를 고증해 보고자 한다.

II. 長興 白達淳 가옥의 연혁

1. 연계세거 과정

전라남도 장흥군 소재의 용산면은 德佛山脈을 이어받은 芙蓉山을 主山으로 하여 筆峰, 僧珠峰, 龜峰, 德音峰, 富興峰 등이 連席하여 天作의 十里長城을 형성하고 있으며, 산 넘어 지척에 있는 동남방의 會鎮, 南浦, 得糧灣 등 삼면의 해역을 完全遮蔽하여 해변산중의 평야와 七個里¹⁾를 형성하고 있다.

白達淳 가옥은 富興峰을 주봉으로 좌측에 天王峰, 전면에 德音峰, 龜峰, 僧珠峰, 筆峰 그리고 멀리 芙蓉山으로 둘러쌓인 넓은 평야지대를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현재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상금리로 불리고 있으나, 원래는 '銑溪' 즉 '쇠끄미'라 하였고, '金谷'이라는 지명은 宣祖 25年(1592) 壬辰倭亂때에 金汝中先生이 군량미 3백석을 헌납한 공으로 宣祖大王이 中國의 晋나라 巨富 '石崇'이 살았던 마을 이름 '金谷'을 본따서 下命한 里名이라고 한다. 마을 입구에는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일명 大將軍石인 入石이 4방에 위치²⁾하고 있다.

금곡은 본래 廣州 李氏(進士 李元昌)가 거주한 곳이었으나, 靈光 金氏(刑曹佐郎 金悅), 그리고 현재 水原 白氏 등이 연계세거하고 있다. 그 연계과정을 『溪西遺稿』를 참고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곡은 본래 진사 이원창이 거주한 곳이었다. 월봉 선생의 둘째 아들인 김귀수를 사위로 맞이하여 마을의 터 모두를 그에게 금급하였다. 이제 나의 터가 된 즉 그 장자인 金悅이 거주하였고, 현재 呂龍이 거주한 터³⁾는 차자인 金忻이 거주하였다. 김흔의 말사위가 곧 우리 7

1) 상금, 초당, 송진, 하금, 관지, 정장, 유동.

2) 立石의 位置1 : 洞口前面에 一側(南쪽). 位置2 : 牙亭入口에 一側(西쪽). 位置3 : 牙亭山登 대나무밭 울타리에 一側(北쪽). 位置4 : 新基(새터) 入口에 一側(東쪽). 특히 西에 위치하고 있는 立石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아랫마을인 下金谷里의 마을 사람들은 항상 上金谷里의 뒷산에서 땀나무를 하기 위하여 마을 入口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立石을 통과하였다. 어느 날 두 마을 사람들이 땀나무 문제로 큰 싸움이 벌어졌고, 아랫마을 사람들이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立石을 무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끼로 立石을 묶어 넘어 뜨렸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호랑이 두 마리가 뛰어 나오자 아랫마을 사람들이 모두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고 하며, 立石을 곧바로 세우자 호랑이가 사라졌다고 하는 전설이 현재에도 구전되고 있다.(口傳은 白達淳으로 부터 채록하였음)

3) 呂龍이 누구인가는 관련문헌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거주한 터는 水原 白氏의 연계세거 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현 가옥이 있는 곳으로부터 뒤로 약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2권 제 3호)

대조 판사공인데, 원래 김흔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거주한 터를 판사공에게 금급하였다. ….”⁴⁾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金谷은 원래 進士 李元昌이 거주한 곳이었다. 그러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金光遠(1478-1550. 字 彥明, 號 月奉)의 둘째 아들 金龜壽(字 仲順, ?-1569?)를 사위로 맞이한 후 거주한 일촌의 터 모두를 그에게 물려주었고, 그 결과 金谷은 廣州 李氏로부터 靈光 金氏로 자연스럽게 연계세거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을 물려받은 金龜壽는 妻인 廣州 李氏와의 사이에 金悅(字 飛仲, 1529-?)과 金忻(生沒年未詳) 등 2男 1女를 두었는 바, 장자 悅은 父인 金龜壽의 터를 그대로 연계하였고, 차자인 忻은 인근의 터에 거처를 정하였다. 그러나 장자 悅은 자식이 없어 金汝重(字 子任, 1556-1609)을 양자로 맞이하였고, 또한 차자인 忻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判事公 白民俊(字 智遠, 1568-1623)을 만사위로 맞이한 후 그가 거주한 곳을 사위에게 물려주었다. 그런데 金龜壽의 장자인 悅이 거주한 곳, 즉 廣州 李氏로부터 靈光 金氏로 연계세거된 터는 系子인 金汝重에게 연계되지는 못했다. 관련문헌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전한 바에 의하면 金汝中은 금곡에서 성장하여 일가를 형성한 후 金谷의 아랫마을인 현재의 下金리로 이거 하였다고 한다.⁵⁾ 이러한 것을 볼 때 廣州 李氏로부터 靈光 金氏로 연계세거된 금곡의 거주터 가운데 차자인 金忻이 거주한 터는 혼인관계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水原 白氏로 연계세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白民俊은 金忻의 만사위가 된 후 그가 거주한 터를 물려받았지만, 그 곳에 입촌, 거주하지는 않았다. 그는 벼슬이 정3품인 訓練院 正에 이르렀지만, 병을 얻어 다시는 벼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향하여 산수의 즐거움을 즐기다가 天啓 癸亥(1623년) 12월 29일 東村의 사택에서 즐⁶⁾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된 지명인 ‘東村’은 현재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이며, 현 가옥이 있는 상금리에서 약 2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위의 사실로 보아 白民俊이 관직을 그만두고 하향하여 주거주지로 삼은 곳은 東村이며, 또한 東村에서 즐⁶⁾한 것으로 보아 상금리에 입촌한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水原 白氏가 처음으로 금곡에 입촌하여 거주한 인물은 判事公 白民俊의 아들인 白진(字 泰, 1590-1625)이다. 서울의 사택에서 태어난 그는 前 觀察使 尹調元의 사위가 되어 서울에서 거주하였으나, 생계가 심히 어려웠고, 1년 사이에 祖父 寺正公 白承宗(1530-1622)과 父 判事公 白民俊(1568-1623)이 갑자기 졸하자 1623년 서울에서 하향하여 외조부 金忻이 거주한 집

4) 白鎭恒 溪西遺稿 권4. 家史別錄, 附家傳疑事. 60-1쪽,8-10行60-2쪽,1行. “金谷乃進士李元昌氏(本廣州)所居之地 迎婿金龜壽氏 卽月峰先生仲子也 - 村基址都爲禱給 今余之基則其長子悅氏居 今昌龍所居之基 次子忻氏居焉 忻氏長女婿則我七代祖判事公也 元無嫡子故禱給於判事公 …”

5) 현재 下金리는 金汝中 先生의 후손들이 입촌을 형성하고 있다.

6) 白鎭恒 溪西遺稿 권4. 家史別錄, 判事公先祖(諱民俊)遺事. 25-1쪽,2-4行. “… 至訓練院正 因有風疾 不復仕進 下鄉逍遙於山水之樂 天啓癸亥十二月二十九日卒于東村之私第 …”

터인 南面의 금곡에 거주하였다.⁷⁾ 또한 그의 아들인 白漢經(號 不憂堂, 1622-1679)은 1643년 그의 가족과 함께 하향하여 금곡의 옛터에 기와집 9칸을 지었다⁸⁾고 한다. 이러한 것을 볼 때 水原 白氏가 처음으로 금곡에 있는 金忻의 거주터에 입촌, 거주한 인물은 백진이며, 그 시기는 1623년 무렵으로 밝혀졌고, 이곳에 신축 건물을 지어 거주한 인물은 그의 아들인 백한경으로 밝혀졌다. 여기에서 백진이 입거한 “南面之金谷”과 그의 아들 백한경이 새로운 건물을 짓고 거주한 “金谷之古基”는 모두 外祖父 金忻의 거주터로 현 가옥에서 뒤로 약 50m 떨어진 곳이며, 건물은 모두 사라지고 현재는 집터만 남아 있다.

그러면, 廣州 李氏, 靈光 金氏(金龜壽와 金悅이 거주한 곳)를 이어 水原 白氏가 현 가옥에 언제, 누가 입주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현 거주자인 白達淳에 따르면 18세기 초 白瑞旭(1680-1743)이 처음으로 현 가옥에 입주하였다고 한다. 水原 白氏 大同譜⁹⁾를 참고로 하여 白瑞旭이 현 가옥에 입주한 경위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嫡子가 없던 金忻의 맏사위가 된 白民俊은 靈光 金氏와의 사이에 백진, 백형, 백헌 등 세 아들을 두었으며, 이들 중 금곡에 처음으로 입주한 인물이 장자인 백진이다. 백진은 監司 尹調元의 女 漆原 尹氏와 혼인하여 白漢經을 낳았고, 白漢經은 가족을 데리고 하향하여 금곡의 고터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였다. 白漢經은 郡守 具權의 딸인 綾城 具氏와의 사이에서 白文奎, 白文昌, 白文彬 등 3형제를 두었는 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3형제 중 父의 거주지(터)를 누가 이어 받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들 3형제가 살았던 17세기 중반은 이미 장자 계승의 풍습이 확립되었던 시대였음을 참작하면, 장자인 白文奎가 자연스럽게 父의 거주터를 연계하였을 것이며, 차자인 文昌과 3男인 文彬은 일가를 이룬 후 父의 거주지 인근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차자인 白文昌은 通德郎 柳景昌의 女인 文化 柳氏와 혼인하여 瑞輝, 瑞采, 瑞旭, 瑞楚, 瑞慶 등 5男 1女를 두었다. 앞의 경우와 같이 장자인 瑞輝는 父의 거주지를 이어받고, 나머지 4형제는 혼인 후 인근에 정착하였을 것이다. 이때 白瑞旭은 어떤 과정을 거쳐 廣州 李氏, 靈光 金氏를 이어 현 가옥에 입주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관련문헌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입주과정은 알 수가 없다.¹⁰⁾ 다만 『水原白氏大同譜』를 참고로 白氏의 配位를 살펴본 결과 靈光 金氏를 配匹로 맞이한 이는 白民俊과 白瑞旭 2인으로 조사되었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白民俊이 靈光 金氏와 혼인함으로써 후에 水原 白氏가 금곡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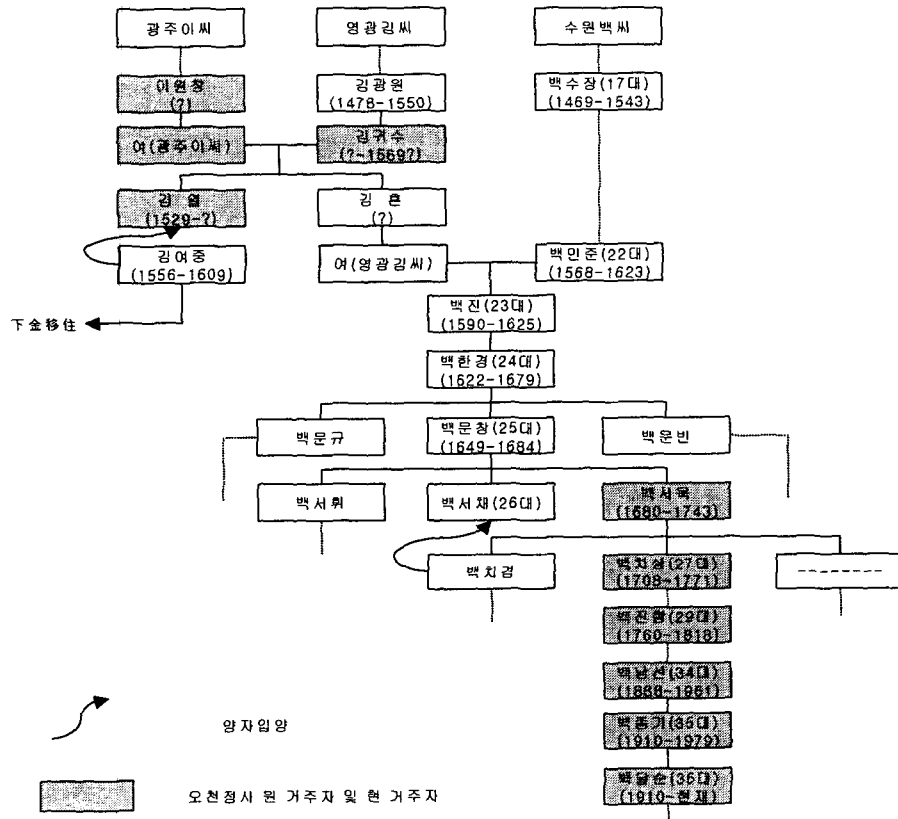
7) 白鎮恒 溪西遺稿 권4. 家事別錄, 通德郎公先祖(諱 進)遺事. 26-2쪽, 6-8行. “... 居京 生計甚難 而寺正公及判事公 次第卒逝 故癸亥年下鄉居于南面之金谷(今龍洙所居之家基 當初得於外祖金公諱忻之家也)”.

8) 白鎮恒 溪西遺稿 권4. 家事別錄, 不憂堂先祖(諱 漢經)遺事. 29-1쪽, 1-6行. “... 因率家下鄉 作家於金谷之古基 瓦家九間 ...”.

9) 水原白氏大同譜編纂委員會 編 水原白氏大同譜. 서울: 陽志社, 1997.

10) 現 世居者인 白達淳에 따르면 廣州 李氏, 靈光 金氏를 이어 금곡을 연계한 白民俊과 廣州 李氏, 靈光 金氏를 이어 現 家屋에 입주한 白瑞旭 모두 容貌俊秀하고 文才가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하는데, 현가옥에 입주하게 된 하나의 동기가 되지 않을까 추정된다고 하였다.

입촌, 거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靈光 金氏인 月峰 金光遠의 6世孫 金濂의 女를 配匹로 맞이한 白瑞旭이 廣州 李氏, 靈光 金氏(金龜壽와 그의 長子인 金悅)가 연계세거한 현 가옥에 입주한 것은 현재까지 관련문헌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해 본다.



<그림 1> 현 家屋의 連繼 世居科程과 水原 白氏의 家系圖

현 가옥에 입주한 白瑞旭을 이어 이곳을 연계세거한 子는 차자 致相이다. 白瑞旭은 靈光 金氏와의 사이에 致謙, 致相, 致紉, 致潤 등 4男 6女를 두었는데, 차자 致相이 현 가옥을 세거한 것은 장자인 致謙이 嫡子가 없는 仲父 白瑞采에게 出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자인 致相이 현 가옥을 세거하였고, 이어 白致相의 장자인 白時鳳으로부터 현 세거자인 白達淳까지 장자계승의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 가옥을 연계세거하고 있다.

이상 현 가옥의 연계세거 과정은 위의 <그림 1>과 같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금곡은 원래 廣州 李氏의 거주지였으나 혼인관계로 인하여 靈光 金氏 그리고 水原 白氏가 차례로

거주하게 되었고, 水原 白氏 중 백진이 1623년 처음으로 금곡에 입거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廣州 李氏, 靈光 金氏(金龜壽, 金悅)가 연계세거한 가옥에 입주한 선조는 白瑞旭으로 그 입주 과정 역시 靈光 金氏와의 혼인관계로 입주하였음을 추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결과는 본 연구자의 추론에 불과하고 白瑞旭에 관련된 좀더 정확한 문헌이 발굴될 때까지 차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 가옥의 건물 구성

富興峰을 主峰으로 현 가옥의 터는 경사각이 약 10도 기울어진 구릉지를 평평하게 다듬은 후에 건물을 배치하였다. 건물은 크게 문간채, 사랑채인 梧川精舍, 그리고 안채인 金谷世居가 남동향으로 직선축을 이루고 있으며, 약 1.8m 높이의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현재 남아있는 이들 건물들은 1700년 이후에 새로 신축되었거나 구택을 헐고 그 자리에 다시 신축된 건물들로 水原 白氏, 즉 白瑞旭이 현 가옥에 입주하였을 당시의 건물은 현재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白瑞旭이 현 가옥에 입주하기 이전의 관련문헌은 현재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1944년 甲申에 白南善이 舊宅의 안채를 헐고 그 곳에 안채 金谷世居를 신축하였기 때문에 구택의 안채에 관련한 건축물은 현재 조금도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본 터의 創建年代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廣州 李氏를 연계세거한 金龜壽의 沒年이 1569년인 것을 참작하여 開宅年代를 추정하면 하한선을 아무리 늦게 잡아도 이미 500여년이 넘었음을 알 수 있다.

안채는 원래 廣州 李氏, 靈光 金氏, 그리고 水原 白氏가 연계세거한 창건년대가 500여년이 넘는 건물로서 약 70-80cm 높이의 석축을 쌓고 그 위에 지은 '경채', 즉 'ㄱ'자형의 앞면이 터진 건물형식이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1944년 白南善이 안채를 전면적으로 신축하여 구택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현 가옥의 건축 형식은 'ㄱ'자형 5칸 기와집으로 칸살이는 중앙칸에 대청을 배치하였고, 대청의 왼쪽에는 상하 2칸의 안방을, 대청의 오른쪽에는 부엌과 부엌방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의 대청과 부엌방 앞쪽으로는 툇마루를 설치하였고, 안채의 측면에 있는 정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방의 측면에도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사랑채 梧川亭舍는 안채와 안마당을 직선축으로 하여 건축되어 있는 바 외부인이 안채를 볼 수 없도록 안채와 사랑채를 구분하는 내담이 있었으나, 1948년 白南善이 내담을 철거하였다. 사랑채는 白顯恒(字 隱叟, 號 溪西, 1760-1818)이 이곳을 대대적으로 改創 또는 重創할 때 건축된 건물로 『溪西遺稿』 卷5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 그는 젊어서는 정침(正寢)을 새로 지어 제도를 지극히 좋게 하였으며, 노년에는 정

침의 남쪽에 집(屋)을 세웠으니, 초목과 대나무, 동백이 정원에 가득하였고, 열을 이룬 경치가 극히 소쇄하였다. 그 서쪽의 편액을 열호재, 동쪽의 편액을 환앵정이라고 하였으니, 대개 모두 때로 익히고 친구가 오는 뜻을 취한 것이다. …”¹¹⁾

위의 내용으로 보아 白鎭恒이 젊었을 때 안채의 오른쪽 대나무 밭(竹露茶園) 안에 조상을 모시는 사당¹²⁾을 지어 지극한 예를 다하였고, 늙어서는 사당의 남쪽, 즉 안채의 정면에 사랑채를 지어 그 명칭을 ‘悅乎齋’ 또는 ‘喚鶯亭’이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사랑채의 명칭인 ‘梧川精舍’가 원래는 ‘悅乎齋’ 또는 ‘喚鶯亭’이며, 사랑채는 1810부터 1818년 사이에 白鎭恒이 건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랑채 梧川亭舍의 건축형식을 보면 높이 약 50-60cm의 석축을 쌓아 평평하게 다진 다음 자연석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운 누형식의 건물로서 현재는 앞면에 ‘梧川精舍’란 堂號가 붙어 있다. 정면 6칸, 측면 2칸의 이 건물은 특히 당시의 봉건적 신분사회를 입증하고 있는 특이한 건물구조를 하고 있는 바, 지붕(蓋屋)이 한 단계 높은 도리기둥(圓柱)의 三間은 舍廊의 原體이며, 지붕이 한 단계 낮은 네모기둥(四角柱)의 三間은 付帶의 下屬宿舍이다. 사랑의 원체를 받치고 있는 기둥의 주춧돌은 虎皮石, 즉 호랑이 무늬의 돌이며, 도리기둥을 하고 있는 2칸은 앞면이 터진 방으로 주인이 객을 맞이하는 장소 또는 공부방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특히 이 원체에 용도에 따라 설치한 5개의 門은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즉, 下屬宿舍 바로 옆에 설치한 가로 53cm, 세로 91cm 크기의 문은 방 안에서 從僕을 부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일명 ‘號令門’이며, 그 바로 옆에 2중으로 설치한 65×113cm 크기의 外門과 內門은 主人의 전용 출입문으로 사용하였다. 주인의 전용 출입문 바로 옆에 설치한 63×158cm 크기의 일명 ‘長席門’은 賓客이 출입하는 문이며, ‘長席門’ 바로 측면에 있는 대청마루로 통하는 문은 주인이 방에서 일반인을 접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앞마당으로 통하는 원체의 뒷문은 원래는 外客이 안채를 볼 수 없도록 설치하지 않았으나 사랑채와 안채를 원활하게 연결시키는 위하여 최근에 설치하였다. 대청마루¹³⁾는 둘로 나누어 전면은 자연의 경치를 음미할 수 있는 뒷마루로 활용하고 있고, 그 뒷면은 서적을 보관하는 서고로 이곳에는 白氏家에 대대로 전존되고 있는 300여권의 서적들이 소장되어 있다.

문간채는 사랑채를 직선축으로 하여 배치하였는데, 1980년 초 白達淳이 기존의 문간채를

11) 白鎭恒 溪西遺稿 권5 家狀 23-1쪽, 8-10行, 23-2쪽, 1-3行. “ … 兒時塲造正寢制度極美 晚又起屋於正寢之南 林卉竹柏滿庭 成列景極瀟灑 其西之扁曰悅乎齋 東之扁曰喚鶯亭 …”

12) 현재는 대나무 밭 안에 집터만 남아 있음.

13) 대청마루는 섬돌 위에 신발을 벗은 다음 올라가는 가장 낮은 1층의 계단, 그리고 일반인이 家主를 謁見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뒷마루, 그리고 주인과 賓客만이 이용할 수 있는 뒷마루 등 전체적으로 3층의 형식이었으나, 최근에 행랑채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1층의 계단과 2층의 뒷마루를 모두 높여 평평한 형태로 바꾸었다고 한다.

헐고 신축한 건물이다. 구 문간채를 헐 때 발견된 상량문에는 1700년대 초에 건축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白瑞旭이 입주하면서 지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상량문이 기록된 柱梁과 기둥은 안채의 대청마루 아래에 있는 木庫에 깊이 보관되어 있다.

이밖에도 건물의 주위에 설치해 놓은 아담한 정원과 연못 등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안채의 후원, 즉 대나무 밭 안에 있는 차밭(茶田)인 일명 ‘竹露茶園’은 본가의 유래와 같이 약 5백 여년이 되었다고 하며, 지금도 후원의 竹田에 자생하고 있는 차(茶)나무 잎은 고래의 유습에 따라 매년 5월5일 단오에 摘取하여 건강식품으로 복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 가옥은 富興峰을 주산으로 한 언덕 위에 지어진 조선시대의 건축물로 안채와 사랑채와 문간채가 직선축으로 배치된 계단식구조를 하고 있다. 건물의 특징과 그 연혁을 살펴보면, 안채 金谷世居는 1944년 구택을 헐고 신축한 건물로 원래는 앞에 터진 ‘口’자 형태의 경채였다고 하나, 현재는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一’자형 5칸 기와집 형태를 갖추고 있다. 사랑채 梧川亭舍는 1800년대 초에 白鎮恒이 새로 지은 건물로 원 당호는 “悅乎齋” 또는 “喚鶯亭”이며, 신분의 고하를 나타내기 위하여 원채와 하숙숙사가 층을 이루고 있고, 그 내부에도 신분에 따라 전용 출입문을 배치한 조선시대의 봉건적 신분사회를 보여주는 특징있는 건축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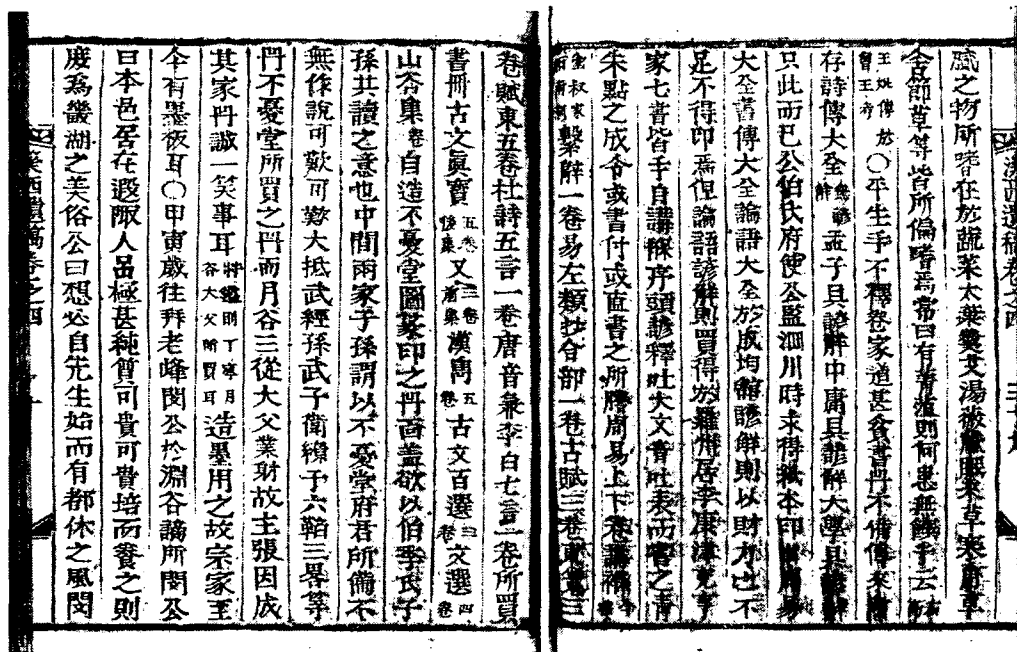
Ⅲ. 『溪西遺稿』에 수록된 집서경위

白達淳 가옥에 소장하고 있는 문헌의 집서경위는 선조들이 소장하고 있던 문헌이 그대로 전존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언제, 누구에 의해 전적이 집서되었는가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溪西遺稿』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적의 집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白文昌의 집서경위

먼저 『溪西遺稿』 「高王考賜軒府君(諱文昌)遺事」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집서과정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가계가 심히 가난하여 서책을 구비하지 못했다. 전존된 서적은 시전대전(언해 무), 맹자(언해), 증용(언해) 대학(언해) 등 단지 이것들뿐이었다. 陽軒公은 형님이 사친 현감으로 있을 때 종이를 구하여 성균관에서 주역대전, 서전대전, 논어대전을 인간하여 언해를 한 즉 재력이 부족하여 인간하지는 못했다. 다만 논어언해는 나주에 사는 이극형(호 강진) 집에서 구입하였다. ... 필사한 서적은 주역(상하권), 계사(1권), 역좌류초합부(1권), 고부(3권), 동책(3권), 부동(5권), 두시오연(1권), 당음 및 이백칠언(1권)이고, 구매한 서책은 고문진보(5권 후집), 고문진보(3권 전집), 한준(5권), 고문백선(3권), 문선(4권), 산곡집(권)이다. 스스로 불우당 도전을 만들어 책에 찍으니 대개 형님과 동생의 자손들이 같이 읽고자 하는 의도였다. 중간에 양가 자손들이 불우당 부군이 구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 매우 가탄스럽구나. 大抵 무경, 손무자, 위료자, 육도삼략 등의 책은 불우당이 구입한 책이다. ...14)



<그림 2> 『溪西遺稿』 「高王考陽軒府君(諱文昌)遺事」

14) 白銀恒 溪西遺稿 권4 家事別錄, 高王考陽軒府君(諱文昌)遺事. 39-2쪽, 3-10행; 40-1쪽, 1-8행. “平生手不釋卷 家道其貧 書冊不備 傳來所存 詩傳大全(無諺解) 孟子具諺解 中庸具諺解 大學具諺解 只此而已 公伯氏府使公監泗川時 求得紙本 印出周易大全 書傳大全 論語大全於成均館 諺解則以財力之不足不得印焉 但論語諺解則買得於羅州居李康津克亨家 七書皆手自講釋 序頭諺釋吐 大文音吐表 而書之青朱點之成 令或書付 或直書之所贈周易上下卷 講釋(今在堂叔家石南洞) 繫辭 卷 易左類抄合部 卷 古賦 三卷 策東 三卷 賦東 五卷 杜詩五言 一卷 唐音兼李白七言 一卷 所買書冊 古文眞寶(五卷後集)又(三卷前集) 漢傳(五卷) 古文百選(三卷) 文選(四卷) 山谷集(卷) 自造不憂堂圖篆印之冊面 蓋欲以伯季氏子孫 共讀之意也. ... 大抵 武經 孫武子 衛縶子 六韜 三畧等冊 不憂堂所買之冊 ...”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白文昌 이전에는 가계가 매우 빈곤하여 서적을 많이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전된 전적은 한문본인 武經, 孫武子, 衛繚子, 陸韜三畧, 詩傳大全과 언해본인 孟子諺解, 中庸諺解, 大學諺解 등에 불과하며, 이들 전적 중 병법류에 속하는 武經, 孫武子, 衛繚子, 陸韜三畧 등의 서적은 白漢經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白文昌 대에 이르러 활발한 집서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집서방법으로는 서적의 印刊, 筆寫, 그리고 구매방법을 통하여 많은 장서를 집서하였다. 먼저, 印刊 과정을 통한 집서 과정을 보면, 형님인 白文奎가 泗川 현감으로 있을 때 종이를 구하여 한문본인 周易大全, 書傳大全, 論語大全을 성균관에서 인간하여 언해하였다. 다만, 이들 3본의 언해본은 재력이 부족하여 인간하지는 못했다. 또한 필사 과정을 통해 집서한 서적을 보면, 周易(上下卷), 繫辭(1卷), 易左類抄合部(1권), 古賦(3권), 東策(3권), 賦東(5권), 杜詩五言(1권), 唐音 및 李白七言(1권) 등이 있고, 구매 과정을 통해 집서한 서적은 古文眞寶(5권 後集과 3권 前集), 漢雋(5권), 古文百選(3권), 論語諺解, 文選(4권), 山谷集(권) 등으로 밝혀졌다. 이중 특히 論語諺解는 羅州에 사는 李克亨의 집에서 구입하였다는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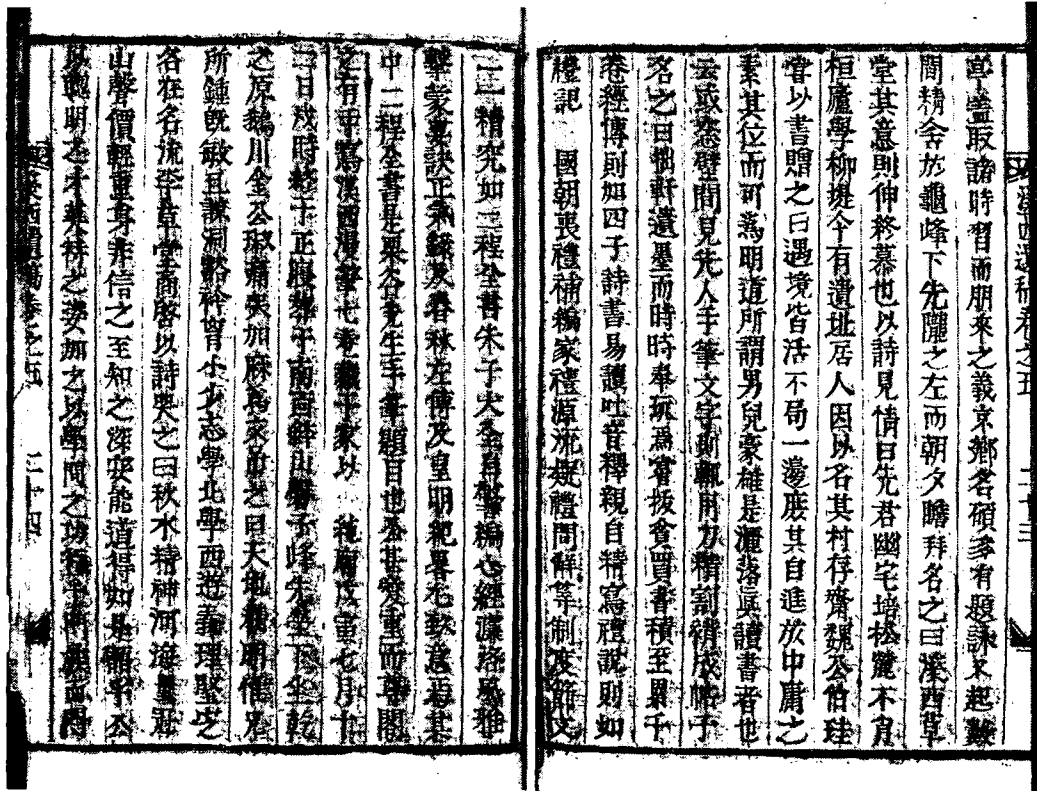
이와 같이 『溪西遺稿』 「高王考場軒府君(諱文昌)遺事」에 수록된 집서과정을 종합해 보면, 白文昌에게 가전된 전적이 아주 미비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 대에서는 집서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비로소 白文昌 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집서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2. 白鎭恒의 집서경위

白文昌을 이어 지속적인 집서활동을 보인 인물은 白鎭恒으로 『溪西遺稿』 「家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 … 일찍이 가난을 벗어나 서적을 구매하니 수천 권에 이르렀다. 경전 즉 사자시서역과 같은 것은 독토음석을 친히 자기가 정사하였고, 예설 즉 예기, 국조상례보편, 가례원류, 의례 문해 등 제도절문과 같은 서적은 일일이 자세히 고구하였으며, 이정전서, 주자대전, 자경편, 심경, 염락풍아, 격몽요결, 정기록, 춘추좌전, 황명기략과 같은 서적은 특히 뜻을 치중하였다. 그중 이정전서는 울곡선생이 손수 쓴 제목으로 공이 매우 애중히 여겨 존각에 두었으며, 공이 쓴 계서만필 7권은 집에 보관하였다. … ”¹⁵⁾

15) 白鎭恒 『溪西遺稿』 권5 「家狀」. 23-2쪽, 8-10行; 24-1쪽, 1-4行. “ … 嘗拔貧 買書 積至累千卷 經傳則如四子詩書易 讀吐音釋 親自精寫 禮說則如禮記 國朝喪禮補編 家禮源流 疑禮問解 等 制度節文 一精究如二程全書 朱子大典 自警編 心經 濂洛風雅 擊蒙要訣 正氣錄 及春秋左傳 及皇明紀畧 尤致意焉 其中 二



<그림 3> 『溪西遺稿』 「家狀」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白鎮恒은 이미 지난날의 가난을 벗어나 구매를 통한 적극적인 집서 활동을 활발히 하여 1천여 책에 이르는 장서량을 구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 집서한 문헌목록이 현존하고 있지 않아 집서한 서적의 종류는 알 수 없지만, 白鎮恒이 집서한 대표적인 장서는 論語, 大學, 中庸, 孟子, 詩經, 書經, 易經, 禮記, 國朝喪禮補編, 家禮源流, 疑禮問解, 二程全書, 朱子大全, 自警編, 心經, 擊蒙要訣, 春秋左傳, 皇明紀略, 正氣錄, 濂洛風雅, 溪西漫筆 등이 있다.

백진항이 주로 관심을 두고 집서한 문헌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의 문헌들을 經·史·子·集 등의 四部로 나누어 보면, 經部에 속하는 문헌은 論語, 大學, 中庸, 孟子, 詩經, 書經, 易經 등의 四書·三經과 禮記, 家禮源流, 疑禮問解가 있고, 史部에는 春秋左傳, 皇明紀略, 정기록 등이 있다. 그리고 子部에 속하는 문헌은 儒敎의 敎化 및 制度節文을 다룬 國朝喪禮補編, 二程全書, 朱子大典, 自警編, 心經, 擊蒙要訣 등이 있고, 集部에는 濂洛風雅, 자신의 手稿本인

程全書是栗谷先生手筆題日也 公甚愛重而尊閣之有 手寫溪西漫筆七卷于家 ….”

溪西漫筆 등이 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백진항이 집서한 서적의 종류는 經·史·子·集의 어떠한 분야에 치중하지 않고, 폭넓은 주제분야를 다양하게 집서하였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 소장문헌 중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하다가 순국한 高敬命(1533~1592) 父子의 충절을 기록한 『正氣錄』의 뒷표지 裏面에는 아래 <그림 4>와 같이 甲戌(1814)年에 본서를 求得한 경위를 자필로 墨書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정기록 1권을 항상 옆에 두고자 하였으나 그럴 수 없었다. 마침 구내 장전 배익노의 집에 이 책이 있어 그 출처를 물어본 즉 주점의 주인이 술값 대신에 받아 둔 것을 알고 소매 속에 넣어 가져왔다고 하니 내가 습득하여 가져왔다. 다행히 오랫동안 품었던 원을 이루었다”¹⁶⁾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白鎭恒이 오랫동안 마음 속에 품고 있었던 정기록을 배익노의 집에서 1814년에 습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正氣錄』과 求得 경위 자필 墨書

이상 『溪西遺稿』에 수록된 「高王考暘軒府君(諱文貞)遺事」와 「家狀」의 내용을 중심으로 장서의 집서과정을 살펴본 결과, 白文昌(1649-1684) 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집서가 이루어졌고,

16) 梧川精舍 所藏本 『正氣錄』. “正氣錄·帙·恒欲常日在之而不能矣 適於舊內長田襄生益老家 有是錄 問其所自出則即其族人酒店之人 酒價代次知 故袖來云 余因以得來 幸遂宿昔之願 甲戌臘月日識”

白鎮恒(1760-1818) 代에는 이미 천여권에 달하는 서적이 집서된 것으로 보아 현 가옥에 소장하고 있는 문헌의 대부분은 白鎮恒에 의해 집서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헌의 집서 방법은 일부는 印刊 또는 筆寫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나, 경제적인 안정을 이룬 白鎮恒 대에는 구매방법을 통하여 대부분의 장서를 집서하였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는 白鎮恒의 『溪西遺稿』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밝혀진 결과이므로 다음 장에서는 현재 소장하고 있는 문헌의 藏書印 또는 藏書記를 분석하여 이상의 결과를 고증해 보고자 한다.

IV. 現存 藏書의 집서분석

현재 사랑채인 梧川精舍의 舍廊에는 목판본 67종, 활자본 41종, 석인본 17종, 필사본 85종 등 총 210종 429책이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전적들이 앞장의 집서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白文昌에게 가전된 또는 白文昌이 직접 집서한 전적들이 과연 그대로 전존되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17세기 중반 이후는 이미 장자 계승의 풍습이 확립된 시대였음을 고려해 볼 때, 셋째 아들인 白瑞旭에게 白文昌이 소장하고 있던 전적이 그대로 전존되었는가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이를 고증하기 위하여 『溪西遺稿』에 수록된 집서과정에 나타난 전적을 현재 소장하고 있는가의 유무를 확인해 보고, 소장문헌의 藏書印 또는 藏書記를 분석하여 언제부터 집서한 전적이 소장되어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1. 傳存有無 분석

앞장의 『溪西遺稿』 「高王考賜軒府君(諱文昌)遺事」의 집서과정에서 白文昌 대에 언급된 전적은 繫辭, 古文百選, 古文眞寶 등 26종이며, 「家狀」의 白鎮恒 代에서 언급된 전적은 家禮源流 등 21종으로 나타났다. 현재 본가에 이들 전적들이 소장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분석하여, 누가 집서한 전적들이 본가에 전존되고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위에 언급된 전적들의 소장유무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傳存有無 比較분석

서명	白文昌	白鎮恒	소장유무	비고
家禮源流		○	○	
擊蒙要訣		○	○	
繫辭	○		×	
溪西漫筆		○	○	
古文百選	○		×	
古文眞寶	○		○	詳說古文眞寶大全
占賦	○		○	
國朝喪禮補編		○	○	
論語		○	○	論語集註大全:歲庚午(1810?)仲春開刊 全州河慶龍藏板
論語大全	○		×	論語集註大全:歲庚午(1810?)仲春開刊 全州河慶龍藏板
論語諺解	○		×	歲庚午(1810?)仲春開刊 全州河慶龍藏板
唐音	○		×	
大學		○	○	大學章句大全:歲庚午(1810?)仲春開刊 全州河慶龍藏板
大學諺解	○		×	歲庚午(1810?)仲春開刊 全州河慶龍藏板
東策	○		×	
杜詩五言	○		×	
孟子		○	○	孟子集註大全:歲在丁卯(1807)豐沛新刊
孟子諺解	○		×	刊行年 未詳이나 19세기 이후 刊本임
武經	○		×	
文選	○		×	古數辭(文選)
賦東	○		×	
山谷集	○		×	
書經		○	×	書傳大全: 戊午(1858?)2月嶺營重刊
書傳大全	○		×	戊午(1858?)2月嶺營重刊
孫武子	○		×	
詩經		○	×	詩傳大全: 戊午(1858?)正月嶺營重刊
詩傳大全	○		×	戊午(1858?)正月嶺營重刊
心經		○	○	
易經		○	○	周易傳義大全:歲庚午(1810?)仲春開刊 全州河慶龍藏板
易左類抄合部	○		×	
濂洛風雅		○	○	增刪濂洛風雅
禮記		○	○	禮記集說大全: [正祖年間(1776-1800)]
衛繖子	○		×	
陸韜三畧	○		×	
疑禮問解		○	○	
李白七言	○		○	李白
二程全書		○	×	
白雲編		○	○	
正氣錄		○	○	
周易	○		×	
周易大全	○		×	周易傳義大全:歲庚午(1810?)仲春開刊 全州河慶龍藏板
朱子大全		○	×	
中庸		○	○	中庸章句大全:歲庚午(1810?)仲春開刊 全州河慶龍藏板
中庸諺解	○		×	歲庚午(1810?)仲春開刊 全州河慶龍藏板
春秋左傳		○	○	春秋左傳詳節句解
漢雋	○		×	
皇明紀略		○	○	

위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白文昌 대에 언급된 26종의 전적 중 본가에 현존하고 있는 것은 古文眞寶, 古賦, 論語大全, 論語諺解, 大學諺解, 孟子諺解, 文選, 書傳大全, 詩傳大全, 李白七言, 周易大全, 中庸諺解 등 12종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論語大全, 論語諺解, 大學諺解, 周易大全, 中庸諺解는 刊記가 모두 '歲庚午(1810?)仲春開刊 全州河慶龍藏板'이고, 書傳大全, 詩傳大全은 '戊午(1858?)正月嶺營重刊'이며, 孟子諺解는 19세기 이후에 간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필사본인 文選은 文尾에 溪西公 白鎭恒의 手稿本(卽我祖父溪西公之手筆)이라고 붉은 글씨로 필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 9종은 白文昌(1649-1684)의 사후에 간행된 것으로 白文昌 대에 언급된 26종의 전적 중 古文眞寶, 古賦, 李白七言 등 3종이 현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溪西遺稿』 「家狀」의 白鎭恒 대에서 언급된 21종에 대하여 현존 유무를 살펴본 결과, 家禮源流, 擊蒙要訣, 溪西漫筆, 國朝喪禮補編, 論語, 大學, 孟子, 書經, 詩經, 心經, 易經, 濂洛風雅, 禮記, 疑禮問解, 自警編, 正氣錄, 中庸, 春秋左傳, 皇明紀略 등 19종이 현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 19종의 전적 중 書經, 詩經 등 2종은 간기가 '戊午(1858?)正月嶺營重刊'으로 白鎭恒(1760-1818) 사후에 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白鎭恒 대에서 언급된 21종 중 17종이 현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¹⁷⁾

이상 『溪西遺稿』에 기술된 전적에 대하여 현존 유무를 살펴본 결과, 白文昌 대에 언급된 26종의 전적 중 古文眞寶 등 3종이 현존하고 있고, 白鎭恒 대에서 언급된 21종 중 家禮源流 등 17종이 현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곧 白文昌 대에 소장하였던 전적이 셋째 아들 白瑞旭에게 그대로 전존되지 않았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며, 현재 본가에 소장하고 있는 전적은 白鎭恒 대에 집서한 서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이 밝혀졌다. 단, 이상의 결과는 전적의 현존 유무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밝혀진 결과이므로 다음 절에서는 藏書印을 분석하여 이를 고증해 보고자 한다.

2. 藏書印 분석

앞절에서는 현재 본가에 소장하고 있는 전적은 白鎭恒이 집서한 서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이 밝혔다. 본 절에서는 현재 소장하고 있는 서적 중 장서인이 개인된 전적을 분석하여 과연 白鎭恒이 집서한 서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보고자 한다.

현재 본가에 소장하고 있는 전적 중 권두 또는 권말에 蓋印된 장서인은 「溪西」 「隋城/白

17) 단, 「家狀」에서 언급된 전적 중 정확한 서명을 밝히지 않은 '四子詩書易'은 '四書三經'을 언급한 것으로 보고, 論語→論語集註大全, 孟子→孟子集註大全, 大學→大學章句大全, 中庸→中庸章句大全, 詩經→詩傳大全, 書經→書傳大全, 易經→周易傳義大全으로 해석하였다.

鎮/恒穩/叟印」 「悅乎齋」 「白亭/雲印」 등이 있고, 표제지와 표지 이면에 자필목서로 소장자를 표시하는 “悅乎齋” “喚罵亭” 등이 있음이 조사되었다. 이중 「溪西」 「隋城/白鎮/恒穩/叟印」은 白鎮恒¹⁸⁾의 장서인이며, 「悅乎齋」는 白鐘琪(1910-1979)의 장서인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白亭/雲印」이 蓋印된 장서인은 白亭雲이 정확히 누구인가는 확실하지 않으나, 앞장의 <그림 1> ‘梧川精舍의 連繼 世居過程과 水原 白氏의 家系圖’에 나오는 白亭台(1861-1896)의 ‘亭’자 行列은 水原白氏大同譜에 모두 水原 白氏의 33世인 것으로 보아 白亭雲은 白亭台와 行列이 같은 인물로 보인다. 한편, 소장자의 自筆墨書 「悅乎齋」 「喚罵亭」 은 모두 白鐘琪(1910-1979)의 자필로 표제지의 이면에는 「悅乎齋」 그리고 뒷표지 이면에는 「喚罵亭」이 동시에 필사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소장문헌의 장서인 또는 장서기를 분석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소장문헌의 장서인 또는 장서기

판 종	서 명	간행년 (필사년)	장서인(또는 自筆墨書)	비 고
목판본	正氣錄	1617	溪西, 隋城白鎮恒穩叟印	
	唐律廣選	1634	溪西, 隋城白鎮恒穩叟印	
	世說新語補	1659-1674	溪西, 隋城白鎮恒穩叟印	
	韓文抄	1674-1720	溪西, 隋城白鎮恒穩叟印	
	疑禮問解	1694	溪西, 隋城白鎮恒穩叟印	
	潘陽二先生遺稿	[1709]	溪西, 隋城白鎮恒穩叟印	
	家禮源流	1714	溪西, 隋城白鎮恒穩叟印	
	玉峯詩集	1742	溪西, 隋城白鎮恒穩叟印	
	通鑑五十篇詳節要解	1746	溪西, 隋城白鎮恒穩叟印	
	無何翁集	1751	溪西, 隋城白鎮恒穩叟印	
	明義錄	1777	溪西, 隋城白鎮恒穩叟印	
	續明義錄	1778	溪西, 隋城白鎮恒穩叟印	
	諭中外論音	1782	溪西, 隋城白鎮恒穩叟印	
	春秋左傳詳節句解	1799	溪西, 隋城白鎮恒穩叟印	
	家禮集考	1801	溪西, 隋城白鎮恒穩叟印	
	石灘先生文集	1801	溪西, 隋城白鎮恒穩叟印	
	河西先生全集	[1802]	溪西, 隋城白鎮恒穩叟印	
	河西先生全集附錄	1802	溪西, 隋城白鎮恒穩叟印	
	詳說古文眞寶大全	1803	溪西, 隋城白鎮恒穩叟印	
	東國文獻	1804	溪西, 隋城白鎮恒穩叟印	

18) 白鎮恒의 字는 穩叟, 號는 溪西이다.

판 중	서 명	간행년 (필사년)	장서인(또는 自筆墨書)	비 고
	大學諺解	1810?	白亨雲	歲庚午仲春開刊 全州河慶龍藏板
	大學章句大全	1810?	白亨雲	歲庚午仲春開刊 全州河慶龍藏板
	論語諺解	1810?	白亨雲	歲庚午仲春開刊 全州河慶龍藏板
	周易傳義大全	1810?	白亨雲	歲庚午仲春開刊 全州河慶龍藏板
	中庸諺解	1810?	白亨雲	歲庚午仲春開刊 全州河慶龍藏板
	中庸章句大全	1810?	白亨雲	歲庚午仲春開刊 全州河慶龍藏板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a)	1831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杏史梁公殉義碑同志錄	1958	悅乎齋	
	陶靖節集	刊年未詳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序: 正德庚辰(1520)...張志淳·陳蔡
	孟子諺解	刊年未詳	白亨雲	[선조명찬]
	西涯擬古樂府	刊年未詳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序: 弘治甲子(1504)...李東陽
	書傳大全	戊午(1858?)	白亨雲	戊午2月嶺營重刊
	書傳諺解	壬戌(1862?)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壬戌季春嶺營重刊
	書傳正文	刊年未詳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詩經諺解	壬戌(1862?)	白亨雲	壬戌季春嶺營重刊
	詩傳大全	戊午(1858?)	白亨雲	戊午正月嶺營重刊
	心經	刊年未詳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歷代巨鑿	刊年未詳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序: 宣德元年(1426)四月 日
	烟村崔先生家傳詩文錄	刊年未詳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牛山先生集	1773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自警編	[1724]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楚辭後語	[1674-1720]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肅宗年間]
	皇明紀略	[1628년 후]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목활자본	松潭先生遺稿	1792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良谷集	1800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德村先生集	1806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明岡遺稿	1917	목서: 悅乎齋·喚罵亭	
	東谷遺稿	1929	목서: 悅乎齋·喚罵亭	
	朱文抄選	[1776-1800]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正祖年間]
	天放劉先生遺集	刊年未詳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己卯十一月日九代孫...謹識
금속활자본	禮記集說大全	[1724-1776]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明齋先生遺稿	1732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國朝喪禮補編	[1757]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鄉禮合編	1797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新編己卯遺蹟	[1799]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牛山先生年譜	[1805]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석인본	景賢祠誌	1936	목서: 悅乎齋·喚罵亭	
	時習亭遺稿	1956	목서: 悅乎齋·喚罵亭	
	潛溪先生遺稿	1957	목서: 悅乎齋·喚罵亭	

판 종	서 명	간행년 (필사년)	장서인(또는 自筆墨書)	비 고
필사본	古數辭	[1760-1818]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古策	[1806]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丙寅四月初日大雪彌成山野
	國朝喪禮補編	1801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崇禎後三周辛酉中秋下浣慕寫
	道響	[1760-1818]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東文選	[1760-1818]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東詩	[1760-1818]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丙子錄	[1760-1818]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補聽	[1760-1818]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隋平錄	[1760-1818]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暘軒公遺蹟	[1760-1818]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要覽	[1760-1818]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暘軒公遺蹟	[1760-1818]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要覽	[1760-1818]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龍門史	[1760-1818]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史文大師	[1760-1818]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簪纓譜(a)	[1760-1818]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簪纓譜(b)	[1760-1818]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貞海君事蹟	[1760-1818]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周易大全	[1760-1818]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周子通書	[1760-1818]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秋潭集	[1760-1818]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窆葬瑣錄·尺度圖견종	1738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崇禎再甲申後三十五年戊午季冬上 澗昌寧後學曹潤復謹書

위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서인과 자필묵서인 장서기를 토대로 소장자(또는 집서자)가 확인되는 전적 중 문제가 되는 것은 白鎖恒의 장서인이 개인된 목판본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이다.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是 (a)·(b)·(c) 3개의 판본이 梧川精舍에 전존되고 있는 바, 간기가 확인된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a)의 형태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江贊 編 1831
 四周單邊, 21×17, 有界, 11行18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1冊(권13-15), 25×18.5
 刊記: 道光11年辛卯8月日西門外開板崔永海
 藏書印: 溪西, 隋城白鎖恒穩叟印

위의 목록에 보이는 바와 같이 1831년 8월(道光11年辛卯8月日) 崔永海가 西門 밖에서 개판한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a)』는 白鎖恒의 사후에 간행된 서적으로 “隋城白鎖恒穩叟印”, “溪西” 등 白鎖恒의 장서인이 개인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서는 白鎖恒의 후손이 집서를 하고, 장서인은 白鎖恒의 소장인을 개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白亨雲印’이 개인된 전적은 대부분 庚午(1810?)년 전라북도全州 지방에서 간행된 完

板本인 河慶龍藏板과 1858년 간본으로 추정되는 嶺營板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1960년대에 白鐘琪가 구득하여 소장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 본가에 소장하고 있는 목판본 67종, 활자본 41종(목활자본 11종, 금속활자본 6종, 연활자본 24종), 석인본 17종, 필사본 85종 등 총 210종에 대하여 장서인과 장서기를 분석해 본 결과 78종은 전적의 소장자가 확인되었다. 78종의 전적 중 白鎮恒의 장서로 확인된 것은 목판본 31종, 활자본 11종(목활자본 5종, 금속활자본 6종), 필사본 20종 등 총 62종이며, 白鐘琪는 목판본 10종, 목활자본 2종, 석인본 3종 등 총 15종, 기타 1종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현재 白達淳 家屋에 소장하고 있는 전적은 白鎮恒이 집서한 전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白鎮恒의 死後에도 지속적인 집서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신식활자로 인쇄한 연활자본과 석인본을 주로 집서하였음이 밝혀졌다.

V. 結言

이상으로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금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白達淳 가옥의 연계세거 과정과 건물의 구성, 그리고 본가에 전존되고 있는 전적의 집서과정에 대해서 관련 문헌과 함께 장서인 또는 장서기를 분석하여 문헌의 집서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金谷은 원래 廣州 李氏의 거주지였으나 靈光 金氏 그리고 水原 白氏가 혼인관계로 인하여 連繼世居하였고, 水原 白氏 중 처음으로 金谷에 입거한 인물은 백진이며, 그 시기는 1643년임을 밝혔다. 또한 廣州 李氏, 靈光 金氏(金龜壽, 金悅)가 연계세거한 현 가옥에 입주한 시기 및 선조는 18세기 초 白瑞旭으로 그 입주과정 역시 靈光 金氏와의 혼인관계로 입주하였음을 추론하였다.

둘째, 현 白達淳 가옥은 富興峰을 주산으로 한 언덕 위에 지어진 조선시대의 건축물로 안채(金谷世居)와 사랑채(梧川精舍)와 문간채가 직선축으로 배치된 계단식구조를 하고 있다. 안채는 원래 500여년이 지난 古宅으로 앞에 터진 ‘口’자 형태의 경채였다고 하나, 1944년 구택을 헐고 신축한 현 건물은 ‘一’자형 5칸 기와집 형태를 갖추고 있다. 사랑채는 1800년대 초에 白鎮恒이 세운 건물로 원래 堂號는 ‘悅乎齋’ ‘喚熙亭’이며, 신분의 고하에 따라 원채와 하숙숙사의 지붕이 층을 이루고 있고, 그 내부에도 신분에 따라 전용하는 문과 툇마루를 배치한 조선시대 봉건적 신분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건축물로 밝혀졌다.

셋째, 『溪西遺稿』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장서의 집서과정을 살펴본 결과, 전적의 집서

방법은 일부는 印刊 또는 筆寫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나, 경제적인 안정을 이룬 白鎭恒 대에는 구매방법을 통하여 대부분의 장서를 집서하였음이 밝혀졌다.

넷째, 본가에 전존된 전적은 언제, 누가 집서한 것인가를 밝혀보기 위하여 『계서유고』에 수록된 전적의 현존 유무 및 소장문헌의 장서인을 분석해 본 결과 白鎭恒이 집서한 서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白鎭恒의 사후에도 지속적인 집서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신식활자로 인쇄한 연활자본과 석인본을 주로 집서하였음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本家에 현존하고 있는 총 210종 409책에 대한 전체적인 장서의 특징 등에 관해서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